

# 지역문학자원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 천안의 지역문학을 중심으로 -

강민희\*

## Ⅱ 차례 Ⅱ

- I. 문화융성과 지역문학
- II. 천안의 지역문학과 의미
- III. 지역문학의 콘텐츠화 방안
- IV. 결론

### 【국문초록】

문화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의 가치에 근간한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선정하고, 지역문화와 관련된 다종다양한 정책을 구상하여 문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비해 지역의 문학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천안시의 지역문학을 토대로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천안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관광매력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라 대상지로 적절하다. 또한 지역문학은 지역의 문화적 보편성과 정체성을 아우를 수 있어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지역문학, 문학자원, 문학공간, 문화콘텐츠, 천안시

---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

## I. 문화융성과 지역문학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선정되고,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강화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바람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제 지역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문화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정체성과 정신적 가치가 내재된 지역문학<sup>1)</sup>을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은 위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지역문학은 문학의 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작가의 연구지·작품배경·작가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작품에 내재된 지역정서를 통해 지역의 개성을 대변할 수 있다.

한편 문화콘텐츠는 “유무형의 문화, 문학적 정신유산인 작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상품화·산업화시켜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sup>2)</sup> 특히 지역문학을 원천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지역문화를 유형화하여 정신적·물질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현장 조성이 용이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육성할 수 있어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더불어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천안의 지역문학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천안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도시테마파크와 체험으

1) 지역문학은 대개 작가의 출생지나 작품의 문학공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출생지와 성장지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같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없거나 일부만이 변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보완하고자 하였다.

2) 강명혜, 『한국문학, 문화와 문화콘텐츠』, 지식과교양, 2013, p.19.

로 가득한 관광매력도시를 만드는 것을 시정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자원의 콘텐츠화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 II. 천안의 지역문화와 의미

문학작품이 작가의 정신을 반영한 소산이라면, 지역문학의 범주를 설정하는 주요한 기준은 지역정체성이다. 물론 이때의 정체성은 지역성을 근간으로 하며,<sup>3)</sup> 이는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초월한 정서적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시간적 좌표를 통한 구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문학은 물론 고전문학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문학작품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천착하고자 한다.<sup>4)</sup>

천안은 ‘천하대안의 땅’ 혹은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불려왔으나,<sup>5)</sup>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를 겪으며 가혹한 수탈과 동족상잔

3) 정영길, 「지방문학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연구』 제24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pp.65-67. 참조.

4) 천안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단국대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이 가운데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5) 천안을 ‘천하대안의 땅’,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려 태조 13년(930)에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성거산에 천홍사와 구룡사를 세웠다. 이는 대목아(大木岳, 지금의 목천)·사산(蛇山, 지금의 직산)·탕정(湯井, 지금의 아산) 일대가 미륵이 산다는 도솔천과 같은 명칭으로 불렸던 것에서 기인한다. 석가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미륵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는 융화세계는 술한 전쟁을 겪으며

의 아픔, 과거 및 자연과의 단절을 겪어왔다. 이러한 체험은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천안의 지역문학작품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 1. 수탈과 폭압에 대한 응전의 공간

천안은 일제강점기동안 금과 쌀의 막대한 수탈이 이루어진 곳이다. 고려 말에 대표적인 금의 산지로 알려져 있던 천안은 ‘직산군 금광 합독 조약’로 인해 일제에 채굴권을 빼앗겼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채굴광부가 되거나 거랑꾼으로 전락했다.<sup>6)</sup> 또 장항선의 개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곡의 수탈이 횡횡하기도 했다.<sup>7)</sup>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일제에 폭압에 응전하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과 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sup>8)</sup> 이러한 당대 상황은 문학작품에 투영되었는데, 특히 이

---

통일을 달성한 고려 태조의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6) 거랑꾼은 일제강점기 천안지역의 광산일대에서 사금을 일고 버린 더미에서 금을 채취하던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천안일대에 수많은 광산이 개발되자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수가 채굴 광부가 되었다. 그러나 광부가 되지 못한 이들은 광산 구덩이에서 파내 놓은 버력에 섞여 있는 쓸 만한 광석을 모으는 거랑꾼이 되었다.

『거랑꾼』, 『디지털천안문화대전』, ([http://cheon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eonan&dataType=01&contents\\_id=GC04500571](http://cheon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eonan&dataType=01&contents_id=GC04500571)) 참조.

7) 1929년 일본인 아사노는 경기미 단지인 장호원과 그 주변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경남 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천안에서 장항, 천안에서 이천시 장호원을 연결하는 사철철도를 개통했다.

『장항선』, 『디지털천안문화대전』, ([http://cheon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eonan&dataType=01&contents\\_id=GC04500571](http://cheon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cheonan&dataType=01&contents_id=GC04500571)) 참조.

8) 직산읍에서 조직된 직산구락부는 매월 1회씩 지식 계발과 풍속 개선을 위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1919년 3월 20일에 양대 광명 학교 여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운동과 3월 28일 직산 금광 광부들의 쫓기 등은 4월 1일 병천 아우내 만세운동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영은 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탈을 상세히 묘사했을 뿐 아니라, 작가의 생애<sup>9)</sup> 및 작품과 연계되는 문학공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민촌』은 궁핍한 소작농과 친일지주의 관계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주계급의 윤리적 타락과 일제권력과의 야합을 고발하는 한편, 농민이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섬세히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천안으로 유추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태조봉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향교말을 안고 돌다가 동구 앞에 버들 숲 속을 뚫고 흐르는데 동막골로 넘어가는 실패 같은 길이 개를 건너 논둑 사이로 요리조리 꼬불거리며 산잔등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 길가 내뚝 옆에 늪은 상나무 한 주가 마치 등 고분 노인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듯한 거기에는 언제 든지 맑은 물이 남실남실 두단을 넘어 흐른다.

- 이기영, 『민촌』,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p.63.

인용문을 통해 작품의 배경이 태조산을 중심으로 한 안서동과 유량동 일대이고, ‘향교말’은 유량동에 위치한 천안향교와 그 주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이 지역은 “자래로 상놈만 사는 민촌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9) 이기영의 유년기에 대한 의견은 부분하지만, 아산군에서 태어나 출생 직후 가족 전체가 천안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기영 일가가 천안의 어느 지역에 정착했느냐에 대한 이론 역시 많으나, 지금의 안서동과 신부동에 해당하는 천안을 안서리(天安邑 安棲里)를 거쳐 북일면 중암리(北一面 中峯里)에 정착했다는 설이 통용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란 마을을 “근 백호되는 세 동리에 기와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제 땅마지기를 가지고 추수해 먹는 집이 없”는 상민들이 모여 사는 민촌이라고 회상했다. 이곳에서 이기영 일가는 유량리 토호인 친척집에서 마름 노릇을 하며 생활했다.

조남현, 『이기영』, 건국대출판부, 2002, p.18.; 이기영, 『내 문학을 길러준 곳, 요박한 천안뜰 뒤(上)』, 『동아일보』, 1939. 3. 25. 참조

과연 4~50호나 되는 동리에 양반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구해도 없는 상놈 천지였다. 어쩌다 못생긴 양반이 이 동리로 이사를 왔다가는 그들에게 들려서 얼마를 못살고 떠나고 떠나고 하”<sup>10)</sup>는 곳으로 묘사되어 작가의 자전적 사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33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말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고향』은 ‘리얼리즘의 승리’<sup>11)</sup>, ‘1930년대 소설의 정점’<sup>12)</sup>으로 평가되는 이기영의 대표작이다. 앞에서 살펴본 『민촌』이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에 비해, 『고향』은 유랑동, 신부동, 안서동 일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류에 민감한 지역으로 묘사된 ‘원터’가 추측을 뒷받침 한다.

오 년 동안에 고향은 놀랄 만큼 변하였다. 정거장 뒤로는 읍내로 연하여서 큰 시가를 이루었다. 전등, 전화가 가설되었다.

C 사철(私鐵)은 원터 앞들을 가로 뚫고 나갔다. 전선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 그 좌우로는 기와집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읍내 앞 큰 내에는 굉장하게 제방(堤防)을 쌓았다. 상리 안골에서 내리지르는 물과 봉화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정거장을 휘돌아서 원터 앞들을 뚫고 흐르다가 읍내 앞 정남쪽으로 와서는 한데 합쳐서 큰 내를 이루었다. 세 갈래가 진 물목은 웅덩이처럼 넓게 패었다.

이 물목은 강구의 어구와 같이 여울이 졌다. 그래서 홍수가 질 때에는 물목이 벽차서 부근의 전답은 물론이요, 읍내 앞장거리까지 침수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를 굉장하게 방축을 쌓아올리고 양쪽으로는 신작로의 가로수와 같이 ‘사꾸라’와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정자를 새로 지었다. 그러나 그동안 변한 것은 그뿐만 아니었다. 상리로 올라가는 넓은 뽕나무밭 개울 옆으로는 난

10) 이기영, 『민촌』,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p.70.

11) 김남천, 『지식 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 『조선중앙일보』, 1935.7.2.

12) 정호웅, 『농민소설의 새로운 형식』, 정호웅 편, 『이기영』, 새미, 1995, p.38.

데없는 제사공장이 높은 담을 두르고 굉장히 선 것이다. 양회 굴뚝에서는 거문 연기가 밤낮으로 쏟아져 나왔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이 밭 가운데는 뽕나무가 약간 심기고 한 귀퉁이에는 잠업전습소(蠶業前習所)라는 누에치는 강습소가 빈약한 널판집 십여 칸 속에 붙어 있었다.

- 이기영, 『고향』, 풀빛, 1989, p.24.

등장인물인 김희준이 동경에 체류하던 5년 동안 건설된 C사철은 안성성(당시 장호원선)으로 판단되며, 이 철도가 가로지르는 원터 앞들은 현재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자리한 안서동의 들판으로 추측된다. 또한 새로 제방을 쌓은 곳은 천안종합터미널 근처의 교차로를 ‘방죽안 오거리’라고 부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부동 일대로 이해할 수 있다.

천안은 “1920년을 전후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된 도시”<sup>13)</sup>인만큼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탈이 자행되었을 것이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영의 작품은 문학사적 가치를 갖춘 작품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과 당대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과거를 가늠케 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2. 전통문화예술과 사랑의 환기

천안삼거리와 능수버들은 민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의 상징이다. 특히 선비 박현수와 기생 능소, 홀아비 유봉서와 어린 딸 능소의 이야기는 남녀는 물론 가족 간의 애틋한 정을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천안은 이를 제외하고도 전통문화와 연계할 수 있고, 사랑을 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시기(詩技) 운초 김부용(雲楚 金芙蓉)

13) 『천안시지』 상권, 천안시, 1997, p.644.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부용은 시문과 가무에 능했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어 기생이 되었다.<sup>14)</sup> 문학적 성취가 높아 황진이, 이매창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시기로,<sup>15)</sup> 허난설헌과 함께 조선여성한문학사의 발흥기와 난숙기를 이룩한 문인으로 평가받았다. 또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탈피한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를 만들어 시문에 조예가 있는 기생첩과 서녀의 창작활동을 독려한 인물이기도 하다.<sup>16)</sup>

그녀의 시재(詩才)만큼이나 세인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은 김부용과 연천 김이양(淵泉 金履陽)<sup>17)</sup>의 사랑이야기다. 두 사람은 김부용이 성천에서

14) 김부용은 평안도 성천(成川)에서 태어났다. 호는 운초(雲楚), 수일방인(水一方人), 기명(妓名)은 추수(秋水)이다. 연천 김이양이 그녀에게 준 시를 보면 운랑(雲娘), 추랑(秋娘), 운초(雲楚) 등으로 불렸고, 이만용(李晩用)이 준 시에서는 운희(雲姬)라고도 불렸다. 김부용의 생몰연대는 1800~185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그녀는 신소설 『부용상사곡』과 『벽부용』의 모델이자, 사모의 정이 가득한 보탑시를 남긴 시인이지만, 김동욱에 의해 『부용상사곡』이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실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정도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그러던 것이 정비석에 의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남상권, 「『무정』의 기녀담 수요와 후일담 소설의 성격」, 『어문학』 74, 2001.; 이려추, 『한·중 기녀시인 김운초와 유여시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15) 박래겸의 『서수일기(西繡日記)』에 그녀를 ‘성천의 명기(名妓) 부용’이라고 기록하면서 시재와 미모가 뛰어나 당시 서울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서어권상신(西漁 權賞愼)은 『서어유고(西漁遺稿)』에서 ‘수일방인’의 「사절정(四絶亭)」을 인용하면서 시의(詩意)에 자못 묘한 깨달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려추, 「김운초의 ‘잡시’ 세 편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제32권, 2010, pp.29-30.; 박종수, 「운초시가연구」, 『대한유도학회논문집』 제4권, 1988, p.126.

16) 이진숙, 「기녀·서녀 출신들 최초 여성 문예동아리 ‘삼호정시사’ 만들다-중앙SUNDAY·아트센터 나비 공동기획 ‘향연-18세기에서 배운다’ <5·끝> 예술 꽃피운 기생」, 『중앙SUNDAY MAGAZINE』 2013. 7. 7.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0703>)

17) 김이양은 안동 김씨의 일문으로 정조 19년(1775)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한성부윤,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순조 26

관기로 있던 시기에 만나 교류를 시작했다. 현종 11년(1845) 김이양이 죽자, 김부용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통한 심정을 시로 달랬다. 이후 46세에 이르러 정인 곁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문중에서는 그녀의 부탁을 수용하여 김이양의 묘가 있는 천안 광덕산 기슭에 지척의 거리를 두고 묻었다.<sup>18)</sup> 김부용의 삶을 토대로 소설을 창작하고, 무덤을 발견하기도 한 소설가 정비석은 묘석에 다음과 같은 기(記)를 남겼다.

운초 김부용은 정조 때 평안도 성천 땅에서 빈한한 선비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사서삼경에 통하고 시문과 가무에 남달리 능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어 부득이 기생이 되었으니 명기 중의 명기였다. 평안감사 김이양의 총애를 받아 그의 부실이 되었고, 부군(夫君)이 상경하여 판서 봉조하의 벼슬을 역임하는 동안 부도를 알뜰히 지켜 내조의 공이 컸던 탓으로 초당마마의 칭호를 받았다. 김대감 사별 후에는 절개를 굳게 지켜오다가 임종시의 유언에 의하여 부군의 고향인 천안 광덕 이곳에 묻히다.

김부용과 김이양은 60에 가까운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애절한 연인이자 금슬 좋은 부부, 의기상투하는 지기지우, 문학자적 동반자로 살았다. 또한 사후에는 천안 광덕리에 자리한 김이양의 묘 근처에 안장<sup>19)</sup>되어 영원히 함께 하는 지음(知音)의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김부용의 문학적 자질과 작품, 정신적인 사랑은 현대인을 자극할 수 있는 화소(話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또한 지역의 쉼터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덕산과의 연계를 통해 ‘휴식’과 ‘체험’ 요

년(1826)에는 봉조하 벼슬을 받고 은퇴했다. 지방의 기강확립에 힘써 고장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주력한 정치인이자 뛰어난 성취를 이룬 문인이다.

18) 이혜순 외, 『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p.71.

19) 문일평, 『호암전집』 제 3권, 조광사, 1940, p.330.

소를 강화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어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할 것이다.

### 3. 평화와 인권 확산의 장(場)

인권도시는 “정부와 조직, 기관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하여 인권 체제(human right framework)를 통해 공동체 삶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시 또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로, ‘평등과 차별의 배제’를 기본 가치로 둔다.<sup>20)</sup> 따라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한 열사의 땅인 천안은 일제에 항거함으로써 민족으로 수호하고, 제국주의에 응전한 도시라는 점에서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독립기념관은 이러한 인권도시의 가치가 응집되는 곳이다. 그러나 교체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동안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과 전시물이 조성되는가 하면, 전문적인 자료에 대한 방문객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왔다. 특히 겨레의집 뒤편에 조성된 시·어록비는 설립취지와 동떨어진 인물 설정과 짜임새 없이 조성된 공간배치로 유기적인 관람이 어렵다.<sup>21)</sup>

독립기념관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환기할 수 있는 곳이고, 시·어록비가 역사인물의 말과 문학작품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시비공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방문객이 보다 쉽게 접근하

20) PDHRE, Human Rights Learning and Human Rights Cities, 2004~2007. Annual Reports of Achievements., <http://www.pdhre.org/>(2014.10.) 참조

21) 독립기념관에서는 시·어록비를 “독립기념관 내 곳곳에 세워진 93기의 비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위인들이 독립과 나라사랑에 대해 말쑈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돌 위에 새겨진 글귀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던 위인들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조형물로 설명하고 있다.

여 애국시와 어록을 감상하고, 그것이 과거와 오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에 조성된 독립운동 현장과의 연계를 실시하는 방향이 효율적으로 여겨진다.

### Ⅲ. 지역문학의 콘텐츠화 방안

문인, 작품, 문학공간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학자원은 실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성찰로 연결되는 철학적 사유에 의한 결과물로, 상상력을 토대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텐츠 기획이 용이하다. 특히 지역에 산재하는 자원을 수집·분류·통합·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화향수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갖는다.

지금부터 앞에서 살펴본 지역문학작품의 의미를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

#### 1. 민촌테마길 및 관련 상품 기획

가로는 지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와 지역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문화와 같은 비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방문객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강화할 수 있으며, 테마(Theme)는 길의 가치성과 공감대를 환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테마길은 이야기를 가로디자인에 입혀 볼거리를 심화시켜 공간에 대한 독특한 인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는 완충공간이자 공존의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천안에서 테마길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이기영과 그의 문학작품으로 여겨진다. 우선 문학사적 가치가 높고, 안서동·유량동·신부동 등 지역의 개성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화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문학관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작가를 선양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결한 동선과 시각적인 거부감이 적은 자연, 도시공간, 생활, 역사 요소 등이 요구되며, 이기영과 그의 문학의 경우는 <표 1>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구성할 수 있다.

〈표 1〉 민촌 이기영의 문학을 활용한 지역의 요소

| 요소   | 내용                                                                                       |
|------|------------------------------------------------------------------------------------------|
| 자연   | 태조산과 인접한 안서동, 유량동 일대와 주요 도심지인 신부동을 아우르고 있어 시골과 도시의 이미지를 함께 느낄 수 있음                       |
| 도시공간 | 태조산, 각원사, 성불사, 현대미술의 숲, 아라리오 조각광장 등이 위치함<br>대중가요에 등장한 ‘단대호수’인 천호지 공원이 조성되어 지역민의 휴식처로 기능함 |
| 생활   | 단국대,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 등이 집중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연구인력이 풍부함<br>각 등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함                   |
| 역사   | 고려 태조의 건국과 관련된 전설이 산재해 있음<br>일제의 가혹한 수탈을 겪은 곳, 독립운동과 투사들의 고향                             |

이기영의 소설에 묘사된 안서동, 유량동, 신부동 일대는 시대적 질곡을 술하게 겪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젊음과 열정이 살아 있는 지역임을 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민촌테마길’은 “문학을 따라 걷는 역사의 길”이라는 테마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의 전개에 비추어 고난, 대립, 항거, 극복의 단계로 조성될 수 있다.

특히 『민촌』, 『고향』에 묘사되는 시대적 상황을 인지토록 하여 역사성을 확보하고, 거리이벤트를 개최하여 가로 기능은 물론, 문화시설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표 2〉 ‘민촌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 단계              | 세부계획                                                    | 목표                                     |
|-----------------|---------------------------------------------------------|----------------------------------------|
|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 자료의 총체적인 수집 및 분석 실시<br>이기영의 작품이 갖는 현재적 의미 도출         | 작품의 상징적 의미 도출<br>문학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확보 |
| 지역 정체성 도출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도출<br>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방안 모색                     | 가로디자인 및 이벤트 기획 콘셉트 마련                  |
|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활성화 | 성불사, 천안향교 등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 방안 도출                         | 지역문화자산의 적극적인 활용 실현                     |
| 문화 공동체 육성       | 지역민과 방문객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애향심과 방문객의 호감 향상            |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매력물 및 기반시설 조성<br>문학공간 활성화 및 마케팅 방안 모색 | 지역 방문 및 체류를 통한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화과 자연, 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비전 마련                   | 민촌길의 지속가능성 확보<br>지역문학 및 문화의 가치 확산 실현   |

〈표 2〉와 같이 이기영의 문학적 가치에 토대를 둔 ‘민촌길’을 육성할 경우 문학성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문객의 정보판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행지에 대한 인상을 강화하며, 테마길의 체험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스탬프북(Stamp Book) 및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운영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기영과 그의 문학을 주제로 하는 스탬프는 상징성과 스토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작가의 초상, 문학공간의 현재와 과거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스탬프북은 유료로 운영하되, 민촌테마길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여행자에게 요구되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탬프 획득을 통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행의 추억을 환기할 수 있는

대상이자, 특전을 누릴 수 있는 아이템임을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콘텐츠의 가치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사이니지는<sup>22)</sup>로, 정보습득이 용이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방문자와의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장소에서 관련된 역사인물과 사진을 찍고, 이를 SNS로 게시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구현되는 스탬프 및 스탬프북과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기영 생가에서 신부동을 아우르는 탐방로에 설치·판매할 수 있으며, 지역의 주요공간에서 벌어지는 예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더할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민촌테마길 조성을 통해 가로경관 개선, 방문객의 체험요소 극대화를 통해 역사와 문학이 공존하는 도시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과 지역민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상업환경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 복합적인 상충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2) 디지털사이니지는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로 지역문화콘텐츠에 적용하기 매우 효율적인 대상이다.

강현욱,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움직임과 인터랙션 디자인」,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권 2호, 2013, p.348.

## 2. 전통문화예술교육 운영<sup>23)</sup>

김부용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기로 국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여러 수 남겨 문화예술인으로 선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랑의 의미를 환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부용의 작품과 생애는 <표 3>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표 3> 운초 김부용을 적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 구분      | 내용                                                                                                       |
|---------|----------------------------------------------------------------------------------------------------------|
| 만화      | 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구성소재 캐릭터 제공                                                                                  |
| 캐릭터 디자인 | 김부용의 캐릭터 디자인을 통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소재 개발<br>모바일용 게임의 시나리오 및 광덕산을 비롯한 지역관광 안내에 활용                                  |
| 교육      | 지역과 관련된 전통문화예술교육(시서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교육소재로 제공<br>e-Pub, 등과 같은 전자 출판용 소재로 활용                                 |
| 지역축제    | 김부용 및 주변인물과 관련된 원형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br>학술세미나, 여성포럼, 다례 등 관련 이벤트와 연계<br>전통체험, 문화관광 등의 소재로 활용, 부가가치의 극대화 유도 |

특히 인물의 문화예술적 역량에 주안을 둔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할 때 지역의 시정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략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23) 전통은 그 나라의 고유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민족의 정신과 혼, 느낌과 경험이 녹아 있어 현대인에게도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에는 감성능력과 관련된 요소인 자신의 감정인식, 감정조절, 타인의 감정인식, 상대방과의 관계 맺기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 평생교육에 적용할 경우 개인의 인성과 감성을 고양하고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표 4〉 연령에 따른 전통문화예술 교육 활동(안)

| 연령    | 영역 |           | 활동명                                                                       |
|-------|----|-----------|---------------------------------------------------------------------------|
| 아동    | 음악 | 전래동요      | 놀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래동요 교육                                                     |
|       | 무용 | 민속무용      | 민속무용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                                                      |
|       | 미술 | 민속화       | 동식물과 관련된 민화 감상 및 감상법 교육                                                   |
|       | 문학 | 전래동화      | 천안 지역의 전래동화 감상 및 토론                                                       |
| 청(소)년 | 음악 | 민속음악      | 해금산조 감상과 감상법 교육                                                           |
|       | 무용 | 민속무용      | 민속무용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                                                      |
|       | 미술 | 금석        | ‘봉선홍경사 갈기비(국보 제7호)’ 등에 대한 답사 실시<br>금석의 감상 및 감상법 교육                        |
|       | 문학 | 지역설화      | 지역설화 감상 및 스토리텔링 교육                                                        |
| 장년    | 음악 | 정악        | 정악 감상 및 감상법 교육                                                            |
|       | 무용 | 신무용       | 신무용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                                                       |
|       | 미술 | 초상화/도자    | ‘박문수 초상(국보 제1189호)’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br>초상화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도자예술 감상 및 감<br>상법 습득 |
|       | 문학 | 시조        | 김부용의 시조 감상 및 감상법 교육, 시창작 교육                                               |
| 노년    | 음악 | 민요/판소리    | ‘천안삼거리’ 등 민요 감상 및 노래 부르기, 분기별 판<br>소리 공연                                  |
|       | 무용 | 민속무용      | ‘살풀이’ 등 감상 및 감상법 교육, 표현                                                   |
|       | 미술 | 불교미술      |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61호)’ 등을 비롯한<br>불교미술 감상 및 감상법 습득                       |
|       | 문학 | 시첩/<br>문집 | 김부용과 김이양의 시첩 및 문집 감상과 짧은 자서전<br>쓰기                                        |

〈표 4〉를 통해 지역민에게 세대별·분야별로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것은 민족 교유의 전통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문화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발달, 현대의 개인주의 극복, 창의성 계발이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아울러 달성할 것이다. 한편 교육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김부용의 무덤에서 매년 행해지는 다례와 연계하여 ‘운초제(가칭)’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 이는 광덕산이 지역

의 풍류를 상징하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역사체험을 위한 도보여행 코스 제안

보행은 통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장식하는 인간 스스로의 육체적 교통수단이며, 항상 개개인의 이동에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적인 이동방법이다. 때문에 걷기를 통해 인간의 사회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행에 기반을 둔 도보여행은 ‘길을 따라 종교·문화·역사자원이나 생태자원 등의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면서 학습하기를 즐기는 걷는 여행’<sup>24)</sup> 또는 ‘길을 따라 자연적 자원이나 문화적 자원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걷는 형태의 관광’<sup>25)</sup>이라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삶의 전반에서 속도를 낮추고자 하는 ‘슬로우’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빠르게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형태의 관광과는 달리 도보여행은 천천히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지역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높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관광 형태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조정하는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가까이 하면서 오감을 통해 관광객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천안은 독립운동사적지로 손꼽히지만, 이를 활용한 답사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천안시청에서 추천하는 코스는 공간 간의 연계성이 낮아 역사교육에 대한 흥미와 여행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환기할 수 있는 독립운동사적

24)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 참조.

25) 정철·노경국·문성중, 『도보관광객의 환경인식과 심리적 웰빙』, 『관광연구논총』 23권 1호, 2011, pp.109-124.

지에 접목하되, 다양한 코스를 개발, 방문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의 독립운동사적지 가운데 현장을 보존하고 과년 시설을 정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목천읍과 병천면 일원으로 특히 병천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여행 코스를 기획하되, 천안의 주요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도보여행 코스는 <표 5>와 같다.

〈표 5〉 천안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활용한 역사기행 코스(안)

| 소요시간  | 콘셉트                    | 내용                                                                                                                                                                             |
|-------|------------------------|--------------------------------------------------------------------------------------------------------------------------------------------------------------------------------|
| 반나절   | 유관순과 함께 하는 민족의 평화 찾기   | 아우내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現유, 매봉교회)→유관순열사봉화탑→유관순생가 및 기념관→아우내 장터 3·1독립만세운동지→병천주재소 터                                                                                                     |
| 1일    | 임시정부의 흔적을 따라 가는 걸음     | 독립기념관→목천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비(목천초등학교)→이동녕 생가 및 기념관→목천기미독립운동기념비→아우내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現 매봉교회 전신)→아우내 장터 3·1독립만세운동지→매봉산 봉화지→유관순 생가→조병옥 생가                                                      |
| 1박 2일 | 청년, 우리의 인권을 찾기 위해 투신하다 | 1일차 : 이종건 생가 터→유창순 집터→유민식 집터→조병옥 생가→유관순 생가→매봉사 봉화지→아우내 장터→이동녕 생가 및 기념관→독립기념관<br>2일차 : 천안공립통학교 천안청년회 창립지(현, 천안초등학교)→직산금광 3·1독립만세운동지→양대주재소 터→입장 3·1독립만세운동지→광명학교 입장 3·1독립만세운동 준비지 |

역사기행 코스에 포함된 지역은 이동녕, 조병옥, 유민식, 유창순 등의 독립운동가들과 김시민 홍대용 등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무관이 배출된 곳이며, 인접한 곳에 독립기념관과 천안박물관이 있어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다.

한편 독립기념관의 시·어록비에 대한 지역민과 방문객의 호감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조형물들은

눈비로 인한 훼손, 취지와 상이한 역사인물의 애국시 및 어록이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전무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조형물을 조성하기보다 기존에 마련된 것과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인 오노 요코(小野洋子)의 <소망나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소망을 적은 쪽지를 나뭇가지에 매다는 것으로, 창작자와 관람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품이 완성되며 서로가 바라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기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영되는 독립기념관에서 ‘소망의 나무 꾸미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기념관 측에서는 방문객의 입장 시 매표와 함께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쪽지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이들은 다양한 전시시설을 자유로이 관람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원을 적고, 시·어록비공원에 식재된 나무에 자신의 쪽지를 매달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에 수집된 소망쪽지를 대상으로 ‘소지태우기’를 열어 서로의 지난 소망을 확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일도 방문객에게 독특한 체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문화기행은 교육관광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여타의 위락관광(慰樂觀光)과는 변별되며, 역사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나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상업적인 접근을 자제하면서도 체험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하되 흥미 위주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방문객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이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sup>26)</sup>이라고 말했다.<sup>27)</sup> 지역과 지방자치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확산하느냐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굴된 원천소스를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 추이는 이미 세계적인 요청이며, 상상력과 창의성, 감성을 토대로 문화적 융복합 분야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적극적으로 부합된다. 더불어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문화,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고 확장하는 일이자, ‘코리안 프리미엄 콘텐츠(Korean Premium Contents)’의 근간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문학이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해야 한다. 이는 일회적인 행사나 유명인의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결국 지역문학이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6) 스탠다드뷰 편집부, 『문화&과학기술, 문화기술(CT)로 재탄생하다』, 『이코노미저널』, 2012.5, p.90.

27)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그 성장속도는 매년 눈에 띄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급부상하는 등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지역문학 작품을 향유해 왔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문학의 콘텐츠화에는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인문학의 정수’로 운위되어 온 문학이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문화콘텐츠의 결합이 낯설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학이야말로 국가와 지역의 정신이 내재된 핵심이고, 문화콘텐츠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궁한 가치를 가진다면 이들의 덕목을 잘 교차시켜 활용하는 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책 혹은 방안의 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천, 「지식 계급 전형의 창조와 ‘고향’ 주인공에 대한 감상」, 『조선중앙일보』, 1935. 7. 2.
- 강명혜, 『한국문학, 문화와 문화콘텐츠』, 지식과교양, 2013.
- 강현옥,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움직임과 인터랙션 디자인」,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권 2호, 2013.
- 남상권, 「‘무정’의 기녀담 수요과 후일담 소설의 성격」, 『어문학』 74, 2001.
- 디지털천안문화대전 (<http://cheonan.grandculture.net>)
- 문일평, 『호암전집』 제 3권, 조광사, 1940.
-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
- 박종수, 「운초시가연구」, 『대한유도학회논문집』 제4권, 1988.
- 스탠다드폼 편집부, 「문화&과학기술, 문화기술(CT)로 재탄생하다」, 『이코노미저널』, 2012. 5.
- 이기영, 「내 문학을 길러준 곳, 요박한 천안뜰 뒤(上)」, 『동아일보』, 1939. 3. 25.
- , 「민촌」,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 이려추, 「김운초의 ‘잡시’ 세 편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제32권, 2010.
- , 「한·중 기녀시인 김운초와 유여시 비교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이혜순 외, 『한국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 이진숙, 「기녀·서녀 출신들 최초 여성 문예동아리 ‘삼호정시사’만들다-중앙SUNDAY·아트센터 나비 공동기획 ‘향연-18세기에서 배운다’ <5·끝> 예술 꽃피운 기생」, 『중앙SUNDAY MAGAZINE』, 2013.7.7.
- 정영길, 「지방문학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연구』 제24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3.
- 정호웅 편, 『이기영』, 새미, 1995.
- 정철·노경국·문성중, 「도보관광객의 환경인식과 심리적 웰빙」, 『관광연구논총』 23권 1호, 2011.
- 조남현, 『이기영』, 건국대출판부, 2002.
- 천안시, 『천안시지』 상권, 1997.
-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http://www.cheonan.go.kr))
- PDHRE (<http://www.pdhre.org>)

**Abstract**

A Suggestion for Developing Regional  
Literature Resources as Contents  
- Centered on regional literature of Cheonan-si,  
Chungcheongnam-do -

Kang, Min-Hee

In the world, more and more nations are recognizing culture and the cultural industry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Korea is not an exception to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determined the administration's direction: cultural enrichment based on the value of culture. I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lead the global trend. In spite of this interest, it actually needs to be more passionate about seeking a way to realize better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by using culture.

Hence this thesis intended to extract the contemporary meanings of Cheonan-si, focusing on its regional literature and literary spaces, and discuss how we can use the city. The area is appropriate for this discussion since the area itself aims to become an attractive city as tourist destination where the citizens enjoy together and its residents genuinely want the city to be revitalized through the literature resources. In addition, as regional literature connotes writers' connections, the backgrounds of literary works, and local feelings, it is something that can express both cultural universality and local identity.

Through the discussion, the contemporary meanings of the literary spaces of Cheonan were extracted - first, the historic spaces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meet; second, the spaces of traditional arts and love; third, the spaces of awakening patriotism. Based on these meanings, 3 things were suggested for realizing the creation of the street environment - first,

suggestion of theme district where people can know how commoners in the past lived and the relevant merchandises (the district and merchandises that have possibilities of being tourism products); second,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linked walking tour course, for promotion of the cultural enjoyment right of the local residents; third, management plan of traditional cultural arts education. I hope that this discussion will act as a stimulant to development of the regional literature as cultural contents.

Key Word : Regional Literature, Literature Resources, Literary Space, Cultural Contents, Chunan City

강민희

소속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

주소 : (712-753)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길 29 경산2차운성타운 103동 1407호

전화번호 : 010-4622-7259

전자우편 : rumen84@naver.com

|                                                                             |
|-----------------------------------------------------------------------------|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br>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br>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
|-----------------------------------------------------------------------------|